

느스한 숲

CARIN

YOON BYUNG WOON

2022.11.25

2023.0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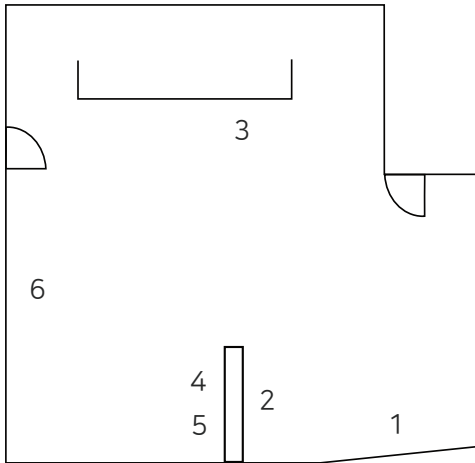
CARIN은 11월 25일부터 윤병운 작가의 [느스한 숲] 展을 전시한다. 원래 숲이란 뾰뾰하게 모여 있는 모양을 말한다. 그런 숲이 느스하다니? 생각할 수도 있겠다. 작가는 일련의 작업을 진행하며 과거의 사건과 현시점의 사이에서 일어나는 밀도감의 저하 혹은 또렷함이 사라지거나 먹먹해지는 현상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은 흐려지고 사라진다. 시간의 순서와 상관없이 어느 시점의 기억은 선명하기도 하고, 다른 시점의 기억은 도무지 떠오르지 않는다. 심지어 배열은 뒤죽박죽이다. 이렇듯 임의적으로 편집된 기억의 강약은 시야가 흐려지듯 하얀 가운데 눈 플레이크가 부유하는 공간으로 표현되었다. 눈꽃은 방향성 없이 공중에 떠 있는 것만 같다. 모든 압력과 힘이 느스해진 상태와 같이. 그런 가운데, 화면에 등장하는 사물들은 유년기의 기억을 일깨우고, 고대 조각과 마주 보고 있는 양은 내면의 신화적 상상력을 자극한다. 이 모든 것들은 일상과 꿈, 과거와 현재,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에 있는 무의식의 대상이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격자 창 너머로 내다보는 바깥 눈 풍경을 그린 높이 3m의 대형 작업을 포함한 64점의 평면작업과 space3에 설치된 영상 작업을 선보인다. 격자창 너머로 보이는 빨간 벽돌집 그리고 나무, 길에 소복이 쌓인 눈으로 고요함이 전달된다. 갤러리에 들어오면 높이 7m 벽에 설치된 격자창과 마주한다. 마치 실제로 어느 겨울날 집 안에서 밖을 내다보는 느낌이 든다. 캔버스들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화면을 이루면서 격자창을 통해 바깥 풍경을 보고 있는 듯 착시를 일으킨다. 작가는 스스로의 기억에 의존하여 작품 안에서 풍경이 되는 소재들 즉, 집의 크기, 집을 구성하는 붉은 벽돌의 사이즈, 그 집의 창의 크기, 배경이 되는 나무의 높이 등을 마치 현실처럼 자세하게 상상하여 그려 넣는다. 작품은 차가운 겨울 풍경을 담고 있지만 바라보고 있으면 왠지 따스하고 평온하다. 느스한 숲, 따뜻한 겨울, 보드라운 벽 등 작가는 대비되는 개념들을 하나의 화면 속에 배치시킴으로 생소하지만 익숙한, 위화감을 넘어선 친숙함을 전달한다.

“겹겹이 공간을 채우면서 시야를 뿌옇게 흐리는 눈의 입자들이 시간의 알갱이처럼 보였습니다. 시간이 쌓이면서 흐려지고 잊히는 기억들... 그런 망각의 풍경, 망각에서 건져낸 기억들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아주 오래전 일을 바로 어제같이, 혹은 어제를 아득한 옛날같이 기억하기도 하잖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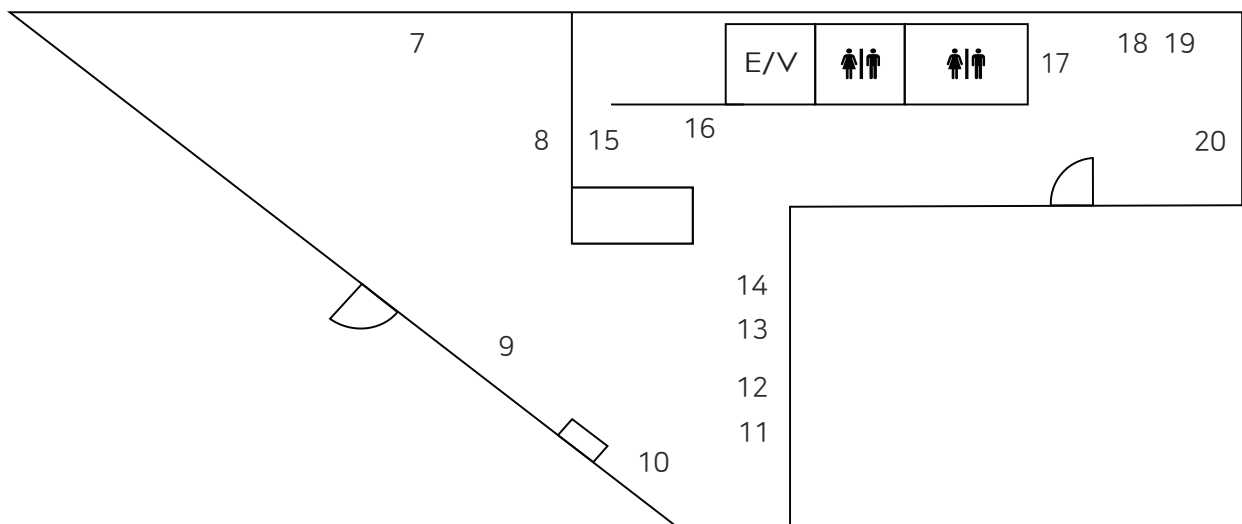
- 윤병운

SPACE #1



1. Picture Thief, 117x91cm, Oil on canvas, 2022
2. Picture Thief, 80x117cm, Oil on canvas, 2022
3. Messenger, 97x162cm, Oil on canvas, 2022
4. Picture Thief, 46x38cm, Oil on canvas, 2022
5. Crossing Into, 61x72.7cm, Oil on canvas, 2022
6. Reading, 97x162cm, Oil on canvas, 2022

SPACE #2



7. Windows, 348x215cm, Oil on canvas, 2022
8. Silence, 73x91cm, Oil on canvas, 2022
9. Picture Thief, 80x117cm, Oil on canvas, 2022
10. Picture Thief, 53x41cm, Oil on canvas, 2022
11. Crossing Into, 40x90cm, Oil on canvas, 2022
12. Memorial, 46x38cm, Oil on canvas, 2022
13. Silence, 73x117cm, Oil on canvas, 2022
14. Picture Thief, 53x72.7cm, Oil on canvas, 2022
15. Picture Thief, 33x53cm, Oil on canvas, 2022
16. Violinist, 53x33.4cm, Oil on canvas, 2022
17. Face, 60x60cm, Oil on canvas, 2021
18. Mirror, 40x90cm, Oil on canvas, 2022
19. A Big Tree, 33x45.5cm, Oil on canvas, 2022
20. Golden Age, 60x60cm, Oil on canvas, 2020

전시는 SPACE #3 까지 이어집니다.